



보도시점 2026. 9. 17.(목) 배포 2026. 9. 18.(금) 09:30

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,

장기요양 현장 ‘생애말기돌봄’ 역량 높인다

- 장기요양기관 기관장·관리자 대상 ‘생애말기돌봄 역량강화과정’ 첫 운영 -

- 한국보건복지인재원(원장 은민수, 이하 인재원) 서울교육센터는 9월 17일(목) 장기요양기관 기관장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‘장기요양기관 생애말기돌봄 역량강화과정’을 처음 운영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과정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생애말기돌봄이 중요해짐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였고, 생애말기돌봄 대상자가 존엄한 삶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역량 향상 교육으로 기획되었다.
 - 본 교육은 ▲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 ▲장기요양기관 생애말기돌봄 이해 ▲노인요양시설 생애말기돌봄 운영 사례 등으로 구성되었다.
 - 특히 제도와 이론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장기요양 현장의 사례를 함께 다뤄, 교육생들이 소속 기관의 상황에 맞는 생애말기돌봄 방안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.
- 이날 교육에는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기관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기관 관계자 총 41명이 참여했으며, 본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은 “어르신이 생활하던 곳에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교육에 참여했다. 이번 교육을 통해

생애말기 이용자와 가족을 어떻게 지원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다”고 말했다.

- 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“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만큼 생애말기에도 이용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돌봄 역량이 중요하다”며 “이번 교육이 장기요양 현장에서 생애말기 이용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- 한편,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는 1기 교육결과를 반영하여 11월 12일(목) 2기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며, 장기요양 현장의 생애말기돌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

▲사진: 17일(목)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'장기요양기관 생애말기돌봄 역량 강화과정'이 진행되고 있다. 출처: 한국보건복지인재원

담당 부서	서울교육센터	책임자	센터장	이수경	(02-870-7302)
		담당자	대 리	곽희정	(02-870-7307)